

제주도 전통와가(瓦家)와 초가(草家)의 가사노동공간에 대한 비교 연구 -민속자료로 지정된 가옥을 중심으로-

이 정 립* (제주관광대학 실내건축과 전임강사)

김 봉 애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제주도는 온화한 지역이면서 바람이 많은 해양성기후의 영향으로 북부의 집중형주거와 남부의 분산형주거가 혼합된 절충형주거이다. 이러한 특성에 관한 거시적 관점의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미시적 관점의 연구는 미비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와가와 초가의 가사노동공간을 연구범위로 한정하고, 미시적 관점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여 제주도 전통가옥의 가사노동공간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또한 다른 지역 전통가옥의 가사노동공간에 대한 비교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은 1978년 <제주도민속자료>로 지정된 6개의 와가와 1979년 <국가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5개의 초가이다. 와가가 위치한 제주시 화북동과 조천읍은 조선시대 연륙(連陸)포구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초가가 위치한 성읍리는 현청(縣廳)소재지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문화재 보호정책을 받고 있는 곳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현장연구의 방법을 채택하였다. 문헌연구는 「제주도문화재 및 유적종합조사 보고서」와 「제주도민속자료」에서 평면형식과 배치형식을 분석하였고, 현장연구는 실측조사와 문화기술학(Ethnography)의 인터뷰기법을 사용하였다. 조사는 2000년 10월 8일~11월 15일에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는 (1)가사노동공간은, 와가는 조리공간인 정지, 식사공간인 찻방, 저장공간인 고팡의 3곳으로 나타났고, 초가는 찻방이 존재하지 않았다. (2)정지의 수는, 와가는 1개로 세대간 공동취사가 이루어졌으며, 초가는 1~2개로 안밖거리 개별취사를 하는 가옥도 나타났다. 고팡의 수는, 와가는 1~3개로 초가보다 많았다. (3)공간의 기능분화는 와가에서 뚜렷하게 나타나 정지에서 음식을 조리하고, 찻방에서 식사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초가는 정지에서 조리와 식사행위가 이루어져 와가에 비해 낮은 분화 수준을 나타냈다. (4)공간별 동선관계는 와가와 초가의 차이는 없고, 정지가 독립건물에 있는 정지거리 별동형은 고팡→상방→찻방→마당→정지의 동선으로 나타났고, 안거리 정지형은 고팡→상방(→찻방)→정지의 동선으로 나타났다. (5)가사노동공간의 면적비율은, 와가는 전체 건물면적 중 30%를 차지하고, 초가는 21%로 와가보다 9%정도 낮게 나타났다.

현대 가사노동공간은 가옥규모가 커질수록 공간의 기능분화가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이므로 기능분화의 관점에서 제주도 전통가옥과 현대가옥과의 접목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면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가사노동공간의 모델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